

경기도 평택지역의 노거수 분포현황과 합리적인 조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Studies on Status of Distribution and a Reasonable
Investigation Method of the Law-Protection Trees of the
Pyung-taek Area Kyonggi-province in Korea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원예과학과
안영희 · 최광률 · 박대식

I. 서론

오랜 세월 동안 천재지변이나 생리적 노쇠화 등에 의한 자연적 훼손과 전쟁·화재·개발 행위와 같은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간직한 노거수는 그 역사성과 함께 삼림과 수목의 상징적 존재로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상징으로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생활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무의 연륜은 과거의 기후와 환경의 상황을 기록하고 과거의 기상등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종다양성 유지측면에서 유전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녹지부족 현상이 현저한 현대적 도시에 있어서의 노거수는 박물관 진열장에 전시되는 문화재와는 달리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고 변화하며, 이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과 지역의 상징이자 지역민의 대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현대 도시에 있어서 노거수가 처한 실상은 국민의 무관심과 관리부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훼손 등에 의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거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이들 노거수 중 일부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보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예산과 인원의 부족, 주민의 무관심, 관리자
의 부족 등에 의해 방치되는 수가 많다.

노거수는 도시에 있어서 녹지가 갖는 기능에 대하여 생존적 측면, 생활
적 측면, 문화적 측면, 자연 보존적 측면, 생물 지표적 측면, 교육적 측면,
기상 완화 효과와 녹음의 양적인 만족감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취락지에 있어서 古木의 존재는 지역 주민에게 녹음의
만족감을 증진시켜 준다. 또 거수(巨樹)로 되면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지역의 상징물로 되기도 하고, 신목(神木)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거수의 관리는 산림법 제 67조 및 동 시행규칙 51조의 규정에 따라
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
나무로 구분하고 구분 기준은 행정 단위별로 회소가치가 있거나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으로서 수령에 따라 그 품격을 분류하고 있어 기능적으
로 우수한 노거수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예가 많다. 특히 노거수의
기능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수종이나 식재 목적, 전설 등의 유무에 따
라 달라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노거수의 존재 형태에 따라
주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사는 평택지역 노거수의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노거수
가 지닌 인문사회학적 평가를 비롯하여 생태계 구성요소로서의 역할 등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야장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상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老巨樹木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들을 참고로, 평택지역의 保護樹 現況과 문제점, 保護樹木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크게 행정구역과 대상수목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 행정구역적으로는 조사대상의 방대함에 따른 시간과 노력의 문제를
고려하여 평택지역인접부근으로 한정하였다. 대상수목은 평택시에 있는
48곳 60본의 보호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1/25,000의 지형

도를 참고로 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수의 분포상황, 수종, 흉고직경 및 수고, 상태, 연령, 주변상황, 근원부의 상황, 생물서식상황, 훼손상태, 훼손의 원인, 노거수의 건전도, 신앙고사등의 유무, 시각적 인식도, 시설물 설치현황, 보호제도 유무 등에 대한 실태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하였다. 수령도 도변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종에 따른 흉고직경에 의해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1916년에 전국을 망라하여 노거수 자원을 조사하여 1919년에 그 결과를 『朝鮮老巨樹名木誌』로 정리하여 발간 한 바 있다. 이 조사사업의 결과는 당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노거수 자원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평택지역내의 노거수에 대한 자료는 평택시청의 자료를 참고로 총 10종 60그루의 노거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평택지역내의 48곳 60본의 보호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평택지역내의 노거수의 수종현황은 총 10종 60본의 노거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느티나무가 18그루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향나무(13), 은행나무, 회화나무, 음나무(7), 팽나무(4), 소나무, 해송, 참나무, 들메나무(1) 등이 출현했다.

평택지역내 노거수의 흉고직경 및 수고는 흉고직경이 0.5~0.9m 40본으로 전체의 66.6%로 가장 많았으며, 수고는 10~14m가 총 보호수의 수고중 가장 많이 있었고 23본으로 43.4%를 차지했다.

노거수의 추정연령은 500년 이상이 14본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으며, 100~199년, 200~299년이 각각 13본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으며, 300~399년이 12본으로 20%를 차지했고, 400~499년도가 8본으로 13.4%를 차지했다.

평택지역내 노거수 주변의 상황은 경작지가 31건으로 전체의 51.6%로 가장 많았고, 각각 도로(20%), 건물군(16.7%), 사찰 및 유적지(6.7%), 산림(5%)로 나타났다.

노거수의 근원부의 상황은 포장이 전체의 35건으로 65%나 나타나서 노거수의 근원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훼손상태는 잔가지의 훼손이 전체의 35건 58.4%로 가장 많았으며, 훼손의 원인은 인위적인 훼손이 35건으로 전체의 60.3%나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노거수의 건전도는 60분중 전체의 3.3%인 단 2본만이 양호하다고 나타나서 노거수의 보호대책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물의 서식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조류의 서식이 23%가량이며 착생식물은 38%가량이 서식하고 있었다. 신앙 및 전승유래 등의 경우 65%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설물 설치현황, 보호제도 유무 등에 대한 실태는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기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생활주변에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거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나, 고도로 산업화 되어 가는 사회적 변천에 따라 많은 노거수들이 훼손 내지는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후손을 위해서라도 향후 노거수의 보호관리대책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